

# 京都 青蓮院藏「觀世音應驗記」所收 百濟記事의 檢討\*

- 특히 '金剛波若經'의 別稱 問題를 중심으로 -

Based on the bibliographic approach about Paekche articles of *Kwanseumhungheumgi*(觀世音應驗記) in Chungryunwon(靑蓮院) in Kyoto, Japan

宋日基(Song, Il-Gi)\*\*

## ◁ 목 차 ▷

- |                 |                   |
|-----------------|-------------------|
| 1. 緒論           | 3.2 '金剛波若經'의 別稱問題 |
| 2. 「觀世音應驗記」의 特徵 | 4. 「金剛波若經」의 校勘分析  |
| 2.1 傳來의 經緯      | 4.1 主要 寫經과의 比較    |
| 2.2 文獻의 特徵      | 4.2 主要 刊本과의 比較    |
| 3. 百濟記事의 檢討     | 5. 結論             |
| 3.1 百濟記事의 紹介    |                   |

## < 초 목 >

이 연구는 백제 무왕대의 '益山遷都說'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觀世音應驗記」의 사료적 가치를 문헌학적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 자료는 현재 일본 경도 소재 청련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권말에 백제관계 기사 2조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2조의 백제 기사를 검토한 결과, 「沙門發正」 조는 많은 誤脫字가 보이고 있으나, 「帝釋寺」 조에서는 오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제석사 기사에 기재된 「金剛波若經」의 '波'자는 그 동안 '般'자의 오자로 보아 왔으나, 필자는 금강경의 고대 사경에서 약칭으로 통용되는 실물자료가 둔황사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무왕 천도와 관련된 제석사 관련 기사 내용은 그 신뢰성이 입증된다 하겠다.

要語 : 관세음응험기, 금강경, 금강과야경, 제석사, 무왕, 익산천도, 청련원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접수일: 2005년 5월 12일 최초심사일: 2005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ABSTRACT>

Based on the bibliographic approach, the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ical value of *Kwanseumhungheumgi*(觀世音應驗記) which contains decisive evidence regarding the argue for transferring the capital to Iksan during the King Mu period of Paekche. *Kwanseumhungheumgi*, which is presently located at Shore In Chungryunwon(青蓮院) in Kyoto, Japan, contains 2 articles about Paekche at the end of the book.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n these 2 articles, Baulchong(發正)'s has lots of wrong or missing characters while Jeseuksa(帝釋寺)'s doesn't. Especially while the character 'pa(波)' from Kyumkangpayakeyung(金剛波若經) in the article of Jeseuksa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wrong character of 'ban(般)', the study claims that it had been in common use as an abbreviation in ancient script of Kyumkangkeyung(金剛經), and the actual occurrence can be seen at Dunghyaungsakeyung(敦煌寫經). This means the content of the article about the argue for transferring the capital during King Mu period is reliable.

Keywords : King Mu(武王), Jeseuksa(帝釋寺), Chungryunwon(青蓮院),  
Kyumkangpayakeyung(金剛波若經)

## 1. 緒論

백제는 삼국 중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이다. 그리하여 고려시대에 김부식 등에 의해 「三國史記」가 편찬되었으나, 이미 멸망 후 500여년이 흐른 역사적 공백이 있었던 까닭에 백제에 관한 내용은 삼국 중 가장 疏略하게 취급되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백제사 연구는 「삼국사기」 외에 중국 및 일본의 문헌사료에 의해서 적지 않게 도움을 받아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년에 백제의 여러 지역을 발굴한 결과, 적지 않은 고고학적 성과를 올리고 있어, 문헌 기록에서 볼 수 없는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수준을 가름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대표적 유물로는 부여 능산리 고분에서 발굴된 ‘金銅大香爐’와 익산의 왕궁탑에서 발견된 ‘金紙金剛寫經’임을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후자의 사경은 菩薩의 설화가 깃든 익산 땅에서 순금으로 마치 종이처럼 펼쳐 만든 다음 뒷면에서 角筆로 눌러 쓴 사경이란 점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유일한 ‘金紙寫經’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한편, 왕궁탑이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오늘날에도 ‘王宮’으로 호칭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 이 일대가 왕궁의 遺墟이었음을 다분히 웅변하고 있어 세인의 이목이 집중된 바이다. 더욱이 이 곳에서 가까운 위치에 일찍이 백제 무왕시대에 ‘帝釋寺’라는 왕실사찰이 존재했었다는 연구가 발표되어 다시금 이 지역이 주목된 바 있었다<sup>2)</sup>. 이때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한층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일본측의 문헌사료가 牧田諦亮에 의해 국내에 소개되어 학계를 더욱 흥분케 하였다. 이 문헌사료가 바로 「觀世音應驗記」의 권말에 부기된 2조의 百濟記事라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 모르는 學人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료의 내용

1) 宋日基, “益山 王宮塔 出土 百濟金紙角筆 金剛寫經의 研究,” 『馬韓·百濟文化研究』 第16輯(圓光大同研究所, 2004. 12).

2) 제석사의 존재 사실을 밝힌 연구는 黃壽永선생에 의해서 1973년에 발표된 「百濟 帝釋寺址의 研究」(百濟研究 4)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에 의해서 1993년에 이 帝釋寺址의 일부에 대한 체계적인 試掘조사가 실시되어 그 결과가 「益山帝釋寺址試掘調査報告書」(익산군, 1994)로 발표된 바 있다.

중에는 놀랍게도 백제 무왕의 ‘益山遷都’ 사실을 입증하는 짝맞은 사실과 천도 후에 그 곳에 세운 사찰이 바로 제석사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 <백제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헌사료가 본래 중국의 육조시대에 편찬된 사본이 어느 때 일본에 전래되었다가 가마쿠라(鎌倉)시대에 다시금 轉寫된 내력을 지니고 있는 필사본으로 소개되어 있다.<sup>3)</sup> 따라서 중국에서 初編된 이후 수차에 걸쳐 전사된 자료이므로, 그 문헌의 신빙성에 대해서 한번쯤은 문헌학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이는 이러한 검토 결과, 오히려 그 문헌사료의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이 문헌의 전래 및 轉寫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제석사 기사 중에 보이는 목탑의 心礎石에 봉안했던 法舍利인 銅紙金剛經을 ‘金剛波若經’ 또는 ‘波若經’으로 약칭하여 기재하고 있는데, 과연 이 표기가 ‘金剛般若經’ 또는 ‘般若經’의 誤記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金剛波若經’은 금강경의 다른 別稱인지, 별칭이라면, 어느 시기에 통용되었던 약칭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그 필사연대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여러 문제가 解明되므로써 비로소 이 문헌사료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2. 「觀世音應驗記」의 特徵

### 2.1 傳來의 經緯

이 「관세음응험기」는 현재 일본 京都의 南蓮院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본래 이 문헌에는 중국의 육조시대 전반 이전에 유포된 영험에 관한 사실을 수록하고 있으며, 후미에 백제와 관련된 두 개의 기사가 부록으로 부기하여 대략 7세기

3) 牧田諦亮,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70), 3-10.

후반이전에 중국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본래 중국에서 편찬된 「관세음응험기」는 일본에서 11세기 후반에 中國本을 주로 轉寫하는 唐院에서 良佑에 의해 서사된 것을 카마쿠라(鎌倉)시대 중기에 재차 轉寫한 사본이 현재 청련원에 소장되어 전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자료는 중국에서 편찬된 사본을 일본에서 2차에 걸쳐 전사된 필사본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전사 과정에서 誤脫字 등의 오류가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다.

## 2.2 文獻의 特徵

일본 경도의 청련원에 소장된 이 문헌자료는 중국에서 전래된 사본을 저본으로 다시금 전사된 사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原寫本이 전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관세음응험에 관한 문헌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 傅亮와 張演이 편찬한 응험기를 포함하여 후대에 六末에 의해 집성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光世音應驗記 / 傅亮(宋, 374-426) 撰. 7條
- ② 續光世音應驗記 / 張演(宋, 5世紀 前) 撰. 10條
- ③ 繫觀世音應驗記 / 陸杲(齊, 459-532) 撰. 69條
- ④ 附錄: 觀世音應驗記. 2條

이처럼 이 문헌자료는 중국 응험기 3종 86조와 부록의 백제 응험기 2조를 포함하여 전체 88조로 편성되어 있다.

이 청련원본에 대한 京都府 文化財保護課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 자료는 붓으로 쓴 필사본이며, 裝幀은 전체 40장을 이어 두루마리 형태로 만든 卷子本으로 되어 있다. 한 장의 크기는 9寸1分×1尺5寸8分이며, 전체 길이는 63尺1寸에 이른다. 絲欄은 烏絲欄으로 한 면은 22행씩 쓰여져 있으며, 한 행에는 17자를 배자하고 있다. 표지는 濃

褐色으로 크기는 9寸1分×8寸이며, 表題는 ‘觀音應驗記’로 되어 있고, 그 아래로 ‘複’이란 글자가 기입되어 있다. 표지의 이면지에는 ‘□意 良佑’라는 墨書가 보이고 있는데, 양우는 11세기 후반에 경도 청련원의 唐院에서 중국 사본의 복사본을 제작하는데 참여했던 인물로 밝혀져 있다<sup>4)</sup>.

따라서 표제에 기입된 ‘複’자의 의미는 바로 良佑가 唐院에서 複本으로 만들어서 그가 한 동안 소유했던 사본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오히려 이 청련원본 「관세음응험기」의 필사연대는 카마쿠라 중기로 추정된 赤松俊秀 주장과는 달리 양우가 생존했던 11세기후반으로부터 12세기전반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한다.

卷首의 제목은 ‘繫觀世音應驗’으로 되어 있고, 그 서명 아래로 ‘并傳張二記/在前念三家’라는 주해가 雙行으로 기입되어 있다. 이어 행을 달리하여 ‘齊司徒從事中郎吳郡六果字明霞撰’이라하여 撰者표시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 행에 ‘光世音應驗記’라는 서명과 ‘宋尚書令北地傅高字李友撰’이란 별도의 서명 및 저자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7조의 應驗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撰者표시에 보이는 ‘傅高’는 ‘傅亮’으로, ‘李友’는 ‘季友’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부량의 응험기 7조에 이어 ‘讀光世音應驗記’라는 서명과 ‘宗太子中舍吳郡張演字景玄撰’이란 별도의 서명 및 저자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10조의 應驗 사실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는데, 서명의 관칭으로 보이는 ‘讀’자는 ‘續’자로, 찬자표시에 보이는 ‘宗’자는 ‘宋’자로 바로 잡아야 비로소 의미가 상통할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연의 응험기 10조에 이어 ‘繫觀世音應驗記’라는 서명과 ‘齊司徒從事中郎吳郡六果字明霞撰’이란 별도의 서명 및 저자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 69조의 應驗 사실이 수록되어 있는데, 찬자표시 중에 찬자를 ‘陸果’로 표기하고 있어 ‘陸果’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육고의 ‘觀世音應驗記’라는 卷末題<sup>5)</sup>에 이어 백제의 응험사실에 관한 2條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4) 牧田諦亮,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70), 3-6.

5) 권말에 보이는 ‘觀世音應驗記’라는 제목을 董志翹는 <觀世音應驗記三種譯註> (南京: 江蘇古籍, 2002)에서 부기한 백제기사에 대한 附題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문헌의 구성체 제상 권말제 없이 바로 부록의 제목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헌은 대표서명으로 보이는 '繫觀世音應驗' 아래 3종의 응험기가 合集되어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서명 아래에 쌍행으로 부기한 내용과 다음 행에 찬자의 대표로 '陸暯'가 기재되어 있는 형식으로 보아 후대에 육고에 의해 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문도 아닌 서명과 찬자표시의 여러 곳에서 적지 않은 오기가 보이고 있어, 청련원본은 일본에 전래되기 이전에 중국 내에서도 여러 차례 전사되었던 사본을 底本으로 필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6)</sup>.

### 3. 百濟記事의 檢討

#### 3.1 百濟記事의 校勘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 경도 청련원에 소장되어 있는 「관세음응험기」에는 백제관련 기사 2조항이 권말에 부록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2개 조항의 기사는 백제세종 義正이 중국에서의 觀世音應驗에 관한 내용과 전라북도 익산 왕궁 소재의 帝釋寺의 사리유물과 관련된 응험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백제와 관련된 응험 사실은 그간 불교학 및 역사학계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여러 곳에서 誤脫字가 심하게 보이고 있어 여기에 그 全文을 校勘 轉載해 두어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전문 중에 보이는 誤脫字는 해당자 뒤에 校勘字를 괄호로 병기하여 참고토록 하였다<sup>7)</sup>.

- 
- 6) 중국에서 南齊의 陸暯가 처음으로 應驗記를 찬술한 시기는 「繫觀世音應驗記」의 敍錄 중에 '北興元年'으로 밝혀두고 있다. 중국의 연호 가운데 '北興'이란 연호는 모두 3번 보이고 있는데, 이 중 南齊에서 사용한 연호는 서기로 501년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육고의 40대 초반에 해당되는 나이이다. 따라서 일본의 青蓮院本과는 600여년 이상의 시차를 보이고 있어, 이 사이에 여러 차례 轉寫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미에 부기한 백제기사는 육고 이후의 사실이므로 일본에서 복본을 제작하면서 부록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 7) 교감에는 牧田諦亮의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70)과 董志翹의 「觀世音應驗記三種譯註」(南京: 江蘇古籍, 2002)을 참고하였다.

① <沙門發正> 記事

有沙門發正者，百濟人也。梁天監中，負笈西渡，尋(導)師學道，頗解義趣(趣)，亦明精進。在梁三十餘年，不能頓忘桑梓，還歸本土。發正白道，聞他說越州界山，有觀世音堵室，故往觀之。檣椽爛盡，而堵牆獨存云。尚(向)有二道人，相要入山。一人欲誦華嚴經，一人[欲]誦法華經，各據一谷，築作堵室。其誦華嚴者，明內(期月)可畢。心疑其伴得幾，就往候之，曾無一卷。其人<其>語曰：期已將盡，糧食歎(欲)絕，置(宜)及期至竟之。若不能今(念)誦一部，正可誦觀世音經也。使還其室。於是，此人心自悲痛宿因鈍根。乃至心誦讀，晝夜匪懈，語(語)得略半。後如(數)日，其人復來省焉。此人以實告之。其人語曰：我已誦華嚴矣。奈何如此觀世音之物，況逕兩三日而不諳乎。我若捨汝而去，則負所要。若待汝忘(竟)，糧食欲盡，既於三日不忘(竟)，理不得相待耳。將以明復來省矣。其勉之。此人至到悲痛倍前，至心誦念，纔得忘(竟)畢。明日，其人復來省，語曰：如此觀世音之物(初)，省(尚)不能誦，無可奈沙[何]，我持(特)捨汝而去也。此人跪曰：昨暮纔得竟了。於是其人大喜，欲以相試，乃坐床誦之，四十卷經，一無遺落，次復，此人上床誦之，始得發聲，即於空中，雨種種花。香花(花香)溢堵室，香聞遍谷，氣氳滿天，不可勝計。於是，誦化嚴者，即下地叩頭，頭面流血，懺悔謝過。事畢，歎(欲)別去。此人止曰：常有一老翁，餉(尙)我食，子可少待。而久久不來，於別而去。此人須(欲)汲水，如井向(問)老翁[人]擔食，番伏於草下。此人怪而問曰：我伴適來，望得共食，有何事異，□□伏不餉(尙)，翁答：彼人者輕我若此，豈忍見乎。於是始知是觀世音菩薩。即四體投地，禮拜甚至。須臾仰視，便失所在，此人所睹堵牆，至今(今)猶存。沙門發正親所見焉。

右一條 普門品云：六十二億恒河[沙]菩薩名字，乃至一時禮拜觀世音，正等無異。

이상의 <沙門發正>條의 본문 내용을 교감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沙門發正>條의 本文 校勘

順序	校勘對象文字	牧田諦亮	革志翹	法華傳記	校勘字
01	尋(導)師學道	尋	尋		尋
02	頗解義趣	趣	趣	趣	趣
03	尙有二道人	尙	向		向
04	一人[欲]誦法華經		欲	欲	欲[補入]
05	明內可畢	期月	期月	期月	期月
06	其人<其>語曰	其			其 <刪削>
07	糧食數絕	數	欲	欲	欲
08	置及期至竟之	置	宜	宜	宜
09	若不能今誦一部	令	念	念	念
10	語得略半	語	語	語	語
11	後如日	數	數		數
12	若待汝忘	竟	竟		竟
13	既於三日不忘	竟	竟		竟
14	纔得忘畢	竟	竟		竟
15	觀世音之物	初	物		物
16	省不能誦	省	尙	尙	尙
17	無可奈沙	何	何	何	何
18	我持捨汝而去也	將	特		特
19	花香, 花溢堵室	花香, 花	花, 花		香 <刪削>
20	數別去	欲	欲	欲	欲
21	餉我食	餉	餉		餉
22	此人須汲水	欲	須	欲	欲
23	如井向老翁擔食	如向老翁	如井間, 老人	如向	井 <刪削>
24	窟伏伏不餉	餉	餉		餉
25	至今猶存	今	今		今
26	六十二億恒河[沙]菩薩名字		沙		沙[補入]

이처럼 전체 540여자에 불과한 <沙門發正>조의 기사 내용에서 무려 26개 곳에서 오타자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부터 누군가에 의해 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필사했을 것으로도 생각되며, 또한 일부는 여러 차례 전사되는 과정에서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짐작될 뿐이다.

② <帝釋寺> 記事

[既是隔海之事, 加後(復)聞見淺薄, 如斯感應, 實非窺見所述. 但果(杲)云; 後葉好事之人, 渡(其)或繼之, 自不足(量)力, 謹著篇二條, 續之篇來(末).] 百濟武康王, 遷都枳慕蜜地, 新營精舍. 以貞觀十三(639)年歲次己亥冬十一月, 天大雷雨, 遂災帝釋精舍. 佛堂·七級浮圖·乃至廊房, 一皆燒盡. 塔下礎石中, 有種種七寶, 亦有佛舍利, 味水精瓶, 又以銅作紙, 寫金剛波若經, 貯以木漆函. 發礎石開視, 悉皆燒盡. 唯佛舍利瓶, 與波若經漆函, 如故. 水精瓶, 內外徹見, 盖亦不動, 而舍利悉無, 不知所出. 將瓶以歸大王, 大王請法師發卽懺悔, 開瓶視之, 佛舍利六箇, 俱在處內瓶, 自外視之, 六箇悉見. 於是, 大王及諸宮人, 倍加敬信, 發卽供養, 更造寺貯焉.]

右一條, 普門品云; 火不能燒.

夫聖人神迹, 導化無方, 若能至心仰信, 無不照復(覆), 捨(拾)右條迫繼焉.

이상의 <帝釋寺>조 전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앞의 <發正>기사에 비해서 誤脫字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發正에 관한 기사는 梁나라 天監연간의 응험 사실로 양 무제 즉위 초반(백제 무령왕대)에 해당되어 陸杲의 응험기 찬술 시기와 대략 비슷한 시기이나, 이와 달리 帝釋寺에 관한 응험사실은 백제 무왕 말년에 있었던 내용으로 發正의 기사와는 무려 130여년의 시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제석사> 기사는 <사문발정>의 기사 보다 훨씬 후대에 발생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어 비교적 오탈자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제석사 기사의 앞부분에 ‘(陸)杲云’이란 인용형식을 빌어 應驗 사실에 관한 내용이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追錄되기를 희망하면서 2조의 기사를 篇末에 수록한다는 뜻을 밝힌 導人文을 수록하고, 이어 백제 무왕 때 帝釋寺 舍利 유물의 응험에 관한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집방식은 약간의 의문을 주고 있다. 그것은 실제 2條의 백제기사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작성되었는데,

후대에 追記된 듯한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既是~篇末]의 도입문을 후대 내용인 <제석사> 기사 앞쪽에 수록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육고의 뜻을 밝힌 문장은 오히려 중간부분 보다는 전후에 배치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석사 기사는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사실이 수록되어 있어, 불교사 및 백제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료로서 인식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제석사 목탑의 사리유물에 관한 내용은 인근의 왕궁탑에서 지난 1965년 12월<sup>8)</sup>에 발견된 사리유물과 親緣性을 보이고 있어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法舍利 유물인 금강경의 納塔에 관한 언급은 당시의 불교사상과 관련 지어 주목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사에 금강경의 약칭으로 ‘金剛波若經’으로 기재되어 그 동안 이를 ‘金剛般若經’의 誤記로 보아 오고 있다는 데 있다.

### 3.2 ‘金剛波若經’의 別稱問題

이처럼 제석사 기사에는 금강경을 ‘金剛波若經’과 ‘波若經’으로 기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약칭하고 있는 ‘金剛般若經’ 또는 ‘般若經’과는 다르다는 점이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鳩摩羅什이 한역한 금강경의 완전한 서명은 “金剛般若波羅密經”으로, 이를 ‘金剛般若經’ 또는 ‘金剛經’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간혹 ‘般若經’으로도 별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略書名의 표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대략 다음의 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 黃壽永선생은 익산 왕궁5층석탑의 해체 및 유물 수습시기를 1966년 6에 <考古美術> 71호에 보고된 <益山 王宮里 石塔 調査>에서는 ‘1965년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 사이로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그 후 선생이 1973년에 쓴 <百濟 帝釋寺址의 研究>(百濟研究 4, p.9)에서는 ‘1967~8년’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1974년에 쓴 <益山의 百濟 佛教遺蹟>(韓國佛教思想史, p.1199)에서는 ‘1967년’으로 되어 있으며, <韓國金石遺文>(제4권, 1985, p.176)에도 ‘1966年12月5日’로 註記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유물발견 시기를 牧田諦亮은 1977년에 쓴 <百濟益山遷都에 對한 文獻資料>(마한백제연구 2, p.147)에서도 ‘1967년’으로 誤記하고 있으며, 金模泰선생이 1989년에 작성한 <三國時代 佛教金石文考證>(佛教學報 26, p.245)에서도 <한국금석유문>에 기재된 그대로 ‘1966年’으로 전제하고 있어 이후 이를 이용한 여러 문헌에서 혼란상이 나타나고 있다.

- ① 약칭인 ‘金剛般若經’을 ‘金剛波若經’으로 단순히 誤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 ② 중국의 육조 이래로 수·당대까지 ‘金剛波若經’이 금강경의 또 다른 약칭으로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③ 그리고 ‘金剛波若經’을 금강경이 아닌 다른 불경(異經)의 經名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가 제기한 문제점을 하나씩 검토해보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解明없이 관용적으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묵시적으로 ①의 誤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sup>9)</sup>. 그러나 필자는 그 외의 가능성도 모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 내지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金剛波若經’으로 기재된 다른 문헌기록이나 실물자료를 발굴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이 점에 유의하면서 혹시 중국의 敦煌에서 발견된 사경 중에 동일한 서명을 지닌 실물자료는 없을까하여 먼저 돈황사경을 영인 수록한 敦煌寶藏을 대상으로 搜查에 착수하였다. 이 책은 무려 140책으로 집성된 全集物이나, 별도의 종합색인이 없어 하나 하나의 확인이 필요하였다. 다행히 이러한 수고결과, 그 실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동일한 사경을 발견할 수 있었다<sup>10)</sup>.

이 사경은 1907년에 스테인(Stein)이 돈황의 장경굴에서 입수한 사경으로, 현재는 영국의 대영박물관(斯1517)에 수장되어 있는 돈황사경 중에서 찾아냈다. 그런데 수많은 돈황사경이 그렇듯 이 사경 역시 卷頭의 일부가 缺失된 상태여서 권두의 書名은 알 수 없지만, 卷末의 서명은 분명 ‘金剛波若經’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경의 권두가 缺落되어 과연 卷末題가 권두제와 일치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돈황문

9) 牧田諦亮이 1977년에 쓴 <百濟益山遷都에 對한 文獻資料>(마한백제연구 2, p.147)에서 ‘金剛般若經’으로 표기한 이래 이와 관련된 논문에서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 마치 ‘金剛波若經’을 誤記로 이해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10) 「敦煌寶藏」(臺北: 商務印書館) 冊11, 337-343.

현 중에 결실이 없이 완전한 상태의 사경은 대부분 卷頭와 卷末의 서명이 일치하는 특징을 보이고는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필자는 2004년 여름에 동경의 서도박물관을 방문하게 되어, 그 곳에 수장되어 있는 중국의 서역에서 입수한 사경에 대해 주의 깊게 살필 수는 기회가 있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도박물관의 수장품은 나카무라 후세쓰(中村不折)가 20세기 전반에 중국에서 수집한 중국의 사경 및 비석(탁본) 등의 서역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 중국의 梁나라 535(大同元年)년에 쓰여진 殘卷本 金剛經이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sup>11)</sup>. 이 사경은 전체 길이가 82cm에 불과한 殘片이나, 권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행스럽게도 卷末題와 사경 조성에 관한 짚막한 發願文이 남아 있다.

그런데 권말제는 “佛說金剛般若波羅蜜經”이며, 그리고 권말제 다음으로 3~4행에 불과한 造成記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문제의 ‘金剛波若經’이란 경명이 보이고 있어 <觀世音應驗記>의 백제 제석사 기사에 내재된 여러 문제 점을 해결할 실마리를 담고 있다. 이 사경의 조성기에는 “大同元年正月一日 散騎常侍淳□□□□/於芮芮 顯造‘金剛波若經’ 一百卷□□□□/屆 梁朝謹本本誓以斯功畢普施□□□□/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조성기에 보이는 ‘大同’은 중국 양나라에서 535년에서 545년까지 武帝가 사용한 연호이며, ‘元年’은 서기로 535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기록은 양 무제 재위연간인 535년에 금강경 100권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금강경의 약칭을 문제의 ‘金剛波若經’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하여 이 실물자료와 조성기록을 통해서, 당시에 금강경의 완전한 명칭에 ‘佛說’ 2자가 관칭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되며, 또한 금강경의 약칭을 ‘金剛波若經’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바로 지난 1965년에 익산의 왕궁탑에서 발견된 <金紙金剛寫經>의 서명과도 일치하며, 그리고 제석사 기사에 보이는 금강경의 약칭이 바로 양나라 사경의 조성기에 표기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에서이다.

11) 「台東區立書道博物館圖錄」(東京:台東區藝術文化財團, 2000), 39.

이상에서 필자에 의해서 발굴된 실물자료 및 문헌기록에 의해 <금강파야경>은 실재하는 사경으로 밝혀졌으므로, 위에서 제기한 誤記와 別稱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다만 ‘金剛波若經’이 과연 금강경과 다른 異經인지의 여부는 경문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면,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다음에서 스테인본 <金剛波若經>과 주요 刊寫本 금강경과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며, 또한 이 사경의 底本과 경문의 潤文 현상을 밝혀 그 작성시대를 추정해 보았다.

#### 4. <金剛波若經>의 經文分析

그리하여 이 <금강파야경>이 과연 異經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현전하는 6종의 금강경 漢譯本과 대비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後秦의 鳩摩羅什이 한역한 금강경과 경문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경은 鳩摩羅什 譯本을 저본으로 쓰여진 불경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 <金剛波若經>은 어느 시기에 쓰여진 것인가를 추정하기 위해서 금강경의 주요 刊寫本과의 교감분석을 통해서 그 일말의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 4.1 주요 寫經과의 比較

지난 20세기 초반에 중국의 서북부 鳴沙山의 敦煌石室에서 대량의 사경이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 이 당시 발견된 사경 중에 현재 가장 많은 분량을 남기고 있는 경전이 바로 「금강경」과 「법화경」이 아닌가 한다. 이는 중국의 국가도서관인 북경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각 불경의 분량을 敦煌寶藏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수록된 金剛經은 冊78에서 冊83에 이르는 6책의 분량이며, 部數는 北3500號로부터 北4436號에 이르는 937부가 이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영국의 스테인(Stein)과 프랑스의 펠리오(Pellio) 蒐集本에 또한 상당량의 돈황사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밖에도 일본과 러시아, 중국의 일부 박물

관에도 다수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금강사경 중에 注文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경은 매우 드물며, 또한 寫成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경은 더욱 희귀하다. 그리하여 이처럼 많은 금강사경 중에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사경은 중국국가도서관 수장의 937부 가운데 9종(北3500호~3508호)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비록 殘卷이나마 寫成記가 수록되어 있어 사성연대가 분명한 스테인 수집본 斯36호, 斯87호 2종을 합쳐 모두 11종을 색출하였다. 그리고 卷頭題에 ‘佛說’ 2자가 관칭되어 있는 돈황사경은 중국 국가도서관에 北3517, 3573, 3740, 4203, 4204, 4207호의 6종이 발견되었으나, 전체가 완전한 상태가 아닌 殘卷本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사경으로는 지난 1965년 왕궁탑에서 발굴된 <金紙金剛寫經>을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였는데, 이 사경은 최근 필자에 의해서 백제 후기에 쓰여진 사경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王宮塔本을 비롯하여 北3504, 3573, 3740과 斯87 등 최선본 5종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中華藏經에 수록되어 있는 금강경의 校勘記를 근거로 대비 교감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다음의 교감결과와 같이 나타난 주요한 현상을 분석해 보면, 卷首의 經題는 결락되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현존본이 ‘金剛般若波羅蜜經’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에서 ‘佛說’ 2자가 冠稱된 사경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권두의 경제가 ‘金剛波若經’으로 기재된 사경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권말의 경제는 ‘金剛波若經’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20여 곳의 교감 대상 중에 왕궁탑본과 스테인본(斯87)에서는 보입된 부분을 제외하면 2곳 정도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북경본에서는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주목되는 교감부분은 장 11의 ‘余時~衆生’ 62자의 출입이 나타나고 있는 곳인데, 비교 대상본 모두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의 출입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당나라 靈幽법사에 의해 822년에 금강경의 異譯本인 菩提流支 漢譯本(509年譯)에 의거하여 補入된 것으로 상식화되어 있다. 그리하

여 이 부분의 출입 여부에 따라 사경의 筆寫연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볼 수 있어, 비교 대상본은 늦어도 모두 822년 이전에 쓰여 진 사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 주요 寫經類와의 經文校勘

校勘位置	校勘對象文字	金剛波若經 (斯1517)	王宮塔 金紙寫經	北3504 (唐寫)	斯87 (690년寫)	北3573 (唐寫)	北3740 (唐寫)
1-1	金剛般若波羅蜜經	*卷頭題 缺	[佛說]增	.	.	[佛說]增	[佛說]增
03-04-08	不不也世尊	.	.	.	.	.	.
03-04-12	如來昔在	.	.	.	.	.	.
04-18-02	[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	.	.	.	有經文	後 補入
05-08-16	我今得聞	[今]	.	今	[今]	今	今
08-13-08	菩提心者	.	.	.	.	.	.
09-06-11	菩提者燃燈	.	.	.	.	者	[者]
09-19-15	菩提實无有法	.	.	實	.	實	實
10-12-15	云何如恒河	.	.	.	.	.	如
11-18-09	具足色身	.	.	.	.	具足	具足
11-16行下	“余時~衆生”62字	.	.	.	.	.	.
12-05-03	如來說卽非	卽	.	卽	.	.	卽
12-08-08	受持讀誦	.	.	讀誦	讀誦	讀誦	.
13-07-08	諸法斷滅相	.	.	.	相	.	.
13-09-15	七寶持用布施	.	.	.	.	.	.
13-11-08	功德何以故須菩提	.	.	.	.	.	何以故
13-13-18	佛說不受	.	.	.	.	.	.
14-04-02	實有者則	者	.	者	.	者	.
14-08-07	不不也	.	.	.	.	.	.
15-04-10	信受奉行	行	持	行	行	持	行
15-5行	金剛般若波羅蜜經	金剛波若經	[佛說]增	.	.	[佛說]增	[佛說]增

이처럼 주요 사경들과 비교한 결과, <金剛波若經>은 690년에 쓰여 진 스테인 본(斯87)과 가장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왕궁탑본과도 매우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 들 사경간의 친근성이 느껴진다.

## 4.2 주요 刊本과의 比較

주요 간본으로는 石刻本과 木板本을 대상으로 비교해 보았다. 석각본으로는 현재 중국 房山の 雲居寺에는 石刻大藏經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른바 ‘房山石經’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곳에 수장되어 있던 石刻大藏經은 房山石經 30책으로 영인 보급되어 이 방면의 연구자에게 특히 주목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모두 15종의 금강석경이 수록되어 있으나, 역시 전문이 완전한 石經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 石經本은 대략적으로 刻成年代를 추정할 수 있어, 본문을 상호 대비 교감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房山石經本 중에 鳩摩羅什 譯本으로 비교적 전문이 완전한 것으로는 唐나라 측천무후 재위초기인 垂拱 1(685)년의 石經을 비롯하여 8세기 초반(704年 직후)에 刻經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2종과 당나라 玄宗이 직접 注疏하여 天寶 1(742)년에 새긴 御注本 등 4종이 비교적 온전하나, 이 중 704년 刻本 1종만을 비교 대상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목판본으로는 중국에서 868년에 간행된 咸通本 金剛經은 古刊記가 수록되어 있는 현존 최고의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권말에는 ‘咸通九年四月十五日 王玠爲二親敬造普施’라는 간행기록이 刻入되어 있어, 중국의 당나라 咸通 9(868)년에 王玠가 양친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판각 간행하여 널리 普施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 또한 唐末인 868년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간행시기가 확실하여 교감 대상본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고려시대에 있어서 금강경의 개판사실을 살펴보면, 고려 초기 重熙 11(1042)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사실이 있으나, 아쉽게도 殘葉 4장만이 傳存되고 있어 그 전모를 살펴 볼 수 없다<sup>12)</sup>. 그 다음으로는 重熙本과 거의 같은 시기에 판각된 5종의 금강경이 再雕本 고려대장경에 入藏되어 있으며, 그 후로 판각된 群生寺(1214年刻)板과 海印寺(1237年刻)板이 현재 해인사 板殿에 수장되어 있다. 그리고 護符 목적으로 조성된 鳳林寺 복장유물인 소자본 금강경

12)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淸州: 古印刷博物館, 2002), 7 9.

이 고려 고종 15(1228)년에 판각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의 간본으로는 재조본에 수록된 금강경과 해인사본 2종을 선정하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중국의 방산석경본 1종, 唐末에 판각된 威通本 1종, 그리고 麗代에 간행된 海印寺本 등 모두 4종을 대상으로 <中華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는 금강경의 校勘記를 근거로 비교 교감을 실시 결과는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주요 刻本類와의 經文校勘

校勘位置	校勘對象文字	金剛般若經 (斯1517)	房山石經 (704年刻)	威通本 (868年刻)	高麗藏 [13c前刻]	海印寺板 (1237年刻)
1-1	金剛般若波羅蜜經	*卷頭題 缺	同	同	同	同
02-12-12	實无不來	.	.	.	.	不
03 04 08	不不也世尊	.	.	.	.	不也
03 04-12	如來昔在	.	.	昔	.	.
04 11-15	[是名般若波羅蜜]	.	.	.	.	是名 般若波羅蜜
04 18-02	[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	.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05-08-16	我今得聞	[今]	今	今	今	今
08 13 08	菩提心者	.	.	.	.	心
09 06 11	菩提者燃燈	.	者	.	者	者
09-12-03	實无有法	有	.	有	有	有
09 19-15	菩提實无有法	.	.	實	實	實
10 15 02	如是沙等	.	.	.	.	沙
11-18-09	具足色身	.	.	具足	具足	具足
11-16行下	“余時~衆生”62字	.	.	有經文	有經文	有經文
11-18 08	佛言如是	.	.	.	.	佛言
12 05 03	如來說卽非	卽	.	.	.	.
12 08-08	受持讀誦	.	.	讀誦	讀誦	讀誦
12 15 09	凡夫是名凡夫	.	.	.	.	是名凡夫
13-07-08	諸法斷滅相	.	.	相	相	相
13-09-15	七寶持用布施	.	.	持用	.	.
13-11-08	功德何以故須菩提	.	.	.	.	何以故
14-04-02	實有者則	者	.	者	者	者
14-08-07	不不也	.	.	.	.	不也
15-04-10	信受奉行	行	持	行	行	行
15-5行	金剛般若波羅蜜經	金剛般若經	同	同	同	同

위의 교감결과와 같이 나타난 주요한 현상을 분석해 보면, 卷首의 經題는 결락되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현존본이 ‘金剛般若波羅蜜經’으로 되어 있으며, 권두 및 권말의 경제가 ‘金剛波若經’으로 기재된 판본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체 20여 곳의 교감 대상 중에 房山石經本과는 보입된 부분을 제외하면 2곳 정도의 미비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으나, 咸通本 이후는 상이한 곳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장11의 ‘尔時~衆生’ 62자의 출입이 나타나고 있는 곳인데, 비교 대상본 중에 방산석경본에만 이 부분이 빠져 있으나, 이후의 咸通本과 麗代판본에는 모두 수록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주요 간본들과 비교한 결과, <金剛波若經>은 704년에 조성된 석경본과 가장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함통본 이후에 간행된 판본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金剛波若經>은 6~8세기 전반에 유행한 금강경의 다른 약칭으로 보인다.

## 5. 結 論

이상에서 일본 경도의 青蓮院에 소장되어 있는 「觀世音應驗記」의 특징과 말미에 부기된 「百濟記事」를 중심으로 살펴 본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考究되었다.

1. 이 「觀世音應驗記」는 본래 중국에서 六代에 의해 6세기 전반 무렵에 편찬된 전사본을 底本으로 일본에서 11세기 후반에 경도의 唐院에서 良佑가 轉寫하여 간직하고 있던 것이 오늘날 경도의 청련원에 전해진 것으로 보았다.

2. 따라서 이 문헌은 대표서명으로 보이는 ‘繫觀世音應驗’ 아래 3종의 응험기가 수록되어 있는 편집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撰者 대표로 ‘陸冥’가 기재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육고에 의해 集成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리고 필자에 의해서 돈황사경 가운데 발견된 실물자료 및 문헌기록에 의해 帝釋寺 기사에 보이는 '金剛波若經'은 '金剛般若經'의 誤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사경이 스테인 수집본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이는 금강경의 다른 略稱 또는 別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 필자에 의해 발굴된 돈황본 「金剛波若經」은 과연 다른 불경(異經)인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문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금강경의 6역본 중에 鳩摩羅什에 의해 412년 漢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5. 그렇다면 이 「金剛波若經」이 어느 시기에 쓰여진 사경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의 敦煌寫經을 비롯하여 房山石經本과 咸通本 금강경, 그리고 우리의 高麗藏本과 海印寺本 금강경 등과 經文의 潤文 현상을 분석한 결과, 690년에 쓰여진 스테인본(斯87) 및 704년에 石板에 새겨진 방산석경본(2-55)과 가장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7세기에 쓰여진 王宮塔本과도 매우 미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6~7세기에 조성 유통되었던 사경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金剛波若經'이란 약칭도 이 시기에 유행했던 別稱으로 파악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본 경도의 청련원에 소장되어 있는 「觀世音應驗記」의 전래 및 전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권말에 수록되어 있는 백제시대에 관음의 응험사실을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沙門發正> 기사에는 誤脫字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帝釋寺> 기사는 오자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교감 분석한 결과, 백제시대의 帝釋寺의 응험에 관한 기사는 신뢰할 만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 판단되었다.

<참고문헌>

青蓮院藏, 「觀世音應驗記」.

스테인본, 「金剛波若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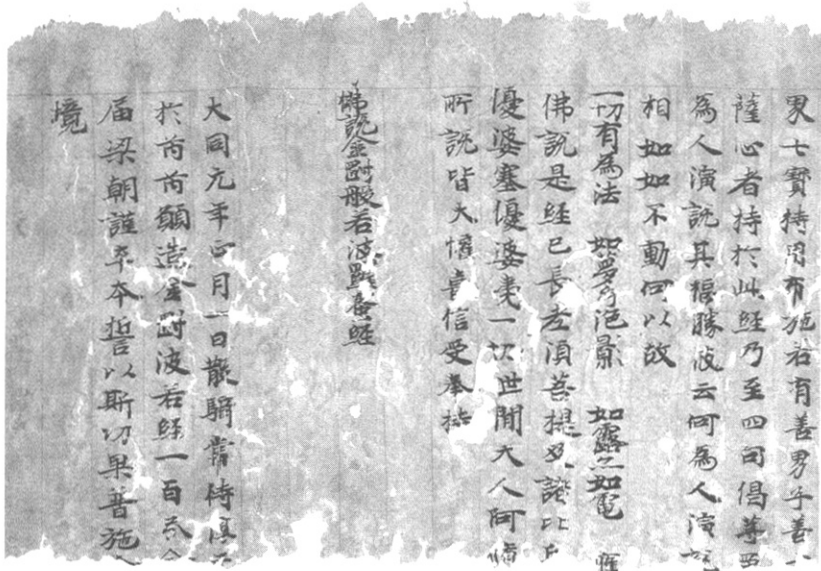
書道博物館藏, 「佛說金剛般若波羅蜜經」.

宋德基, “益山王宮塔出土百濟金紙角筆 金剛寫經의 研究.” 「馬韓·百濟文化研究」  
第16輯(圓光大 同研究所, 2004. 12).

牧田諦亮, 「六胡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70).

董志翹, 「觀世音應驗記三種譯註」(南京: 江蘇古籍, 2002).

<寫眞資料>



<사진 1> 書道博物館藏 <佛說金剛般若波羅蜜經> 卷末 造成記의 '金剛波若經'